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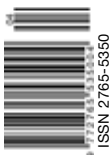
04
2023

유네스코뉴스
UNESCO.or.kr/NEWS



커버스토리

챗GPT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목 차 Contents

- | | |
|---|---|
| 04 커버스토리
챗GPT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 22 임팩트 스토리
포용과 다양성 위에 일어난 학교의 변화 |
| 10 위원 칼럼
봄꽃 향기와 챗GPT,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의 과학·역사·교육 | 24 유네스코의 한국인
유엔대학교 박종휘 박사 |
| 12 기획
지금 다시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 26 ESD 공식프로젝트
제주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생태탐험 프로그램 |
| 14 이슈 브리프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 | 28 지구촌 교육나눔
시집 인세 기부한 경북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
| 16 현장스케치
‘캐럿랜드’에서 세븐틴 팬들과 함께 외친 교육의 미래 | 30 단신 |
| 18 유네스코 ‘카2센터’ 탐방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 32 기금보고 |
| 20 창립 70주년 기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0주년의 결정적 숫자들 ❶ | 34 세계 기념일
세계 예술의 날(4월 15일) |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해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이바지하는
유엔 전문기구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54년 설립된 기관으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네스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표지 이미지: 챗GPT가 더 나은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rafapress / Shutterstock.com)

발간일 2023년 4월 1일 창간일 1964년 1월 10일 등록번호 서울 라08043
발행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인 한경구 편집 김보람, 노지원, 김영은
편집디자인 수카디자인 인쇄 형우디앤피
대표전화 02-6958-410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기사관련 문의/구독신청 및 변경 news@unesco.or.kr

*『유네스코뉴스』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발간됩니다.

*『유네스코뉴스』의 글에 담긴 필자나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다 믿진 마세요

지난해 말 공개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는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것이 학생의 숙제를 대신 해 줄까봐 걱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내 밥그릇을 뺏기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고, 1980년대에 휴대용 계산기 사용을 금지시켜달라며 거리로 나선 수학 교사들에 대한 신문 기사를 공유하면서 교육계의 암살(?)을 비꼬는 사람도 있습니다.

챗GPT의 성능은 분명 놀랍습니다. 오픈AI라는 미국 회사가 개발했음에도 한국어를 포함한 수많은 언어를 적절히 알아듣고, 미처 읽어보지 못한 책 내용을 요약하는 데도 훌륭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마치 컴퓨터 화면 건너편에 대단히 폭넓은 공부를 한 어떤 사람이 앉아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진짜 사람이 대답을 내놓는 것만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우리는 챗GPT를 더욱 ‘사람 같은 인공지능’으로 여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6년 전 ‘알파고’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던 바둑 최강자 이세돌의 표정을 통해 인공지능의 위력을 간접 체험했던 우리가, 이제는 챗GPT가 내놓는 자연스럽고 솔직한 대답을 읽으며 직접 새 시대를 경험해 보고 있는 셈이랄까요.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OO에 대해 인공지능이 내놓은 대답’ 류의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모두 ‘학습’한 지식인이 새로운 통찰과 분석을 내놓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가 40여 년 전의 수학 교사들처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설지 아니면 내 숙제를 전적으로 이 친구에게 맡길지 결정하기 전에, 이 새로운 도구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내놓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연히 그 한계와 활용법까지 알게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유네스코뉴스』도 지난 한 달간 이 생소한 상대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동시에 이 친구의 ‘뒷조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커버스토리를 통해 그 결과물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좀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이야기를 내놓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함께 짚어 보았습니다.

챗GPT는 다양한 이야기를

챗GPT는 마치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어떤 질문에는
솔깃한 대답을 내놓는다. 하지만 인터넷 상의 방대한 자료를 모두
'읽었다'고 하는 이 인공지능에게서는 허풍쟁이의 냄새도 난다. 따라서
우리는 챗GPT를 믿기보다는 다만 이용해야 하며, 수려한 말솜씨에
감탄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공정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요구해야 한다.

들려줄 수 있을까?

말하는 인공지능과 말을 하기 위한 인공지능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새로운 소통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단기적 충격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 함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활자 인쇄,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출현했을 때처럼, 지금 우리는 똑같은 인지적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탔다.”

영국 개방대학교(Open University)의 존 노튼(John Naughton) 교수가 1월 7일 『가디언』에 쓴 말대로, 지금 전세계에서 부는 챗GPT(ChatGPT) 열풍에는 새 기술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두려움과 환호, 우려와 희망이 뒤섞여 있다. 챗GPT가 보여주는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기술보다도 이 인공지능을 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노튼 교수는 챗GPT가 “엔트로포모피즘(anthropomorphism; 신이나 동물, 사물 등의 의인화)에 불을 지폈다”라고 말하며, 이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계를 일종의 의식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향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하는 인공지능’과 ‘말하도록 고안된 인공지능’은 다르다. 많은 경우 챗GPT는 말하는 인공지능 취급을 받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이것은 ‘자연스러운 말을 하도록 고안된 인공지능’이다. 챗GPT에게 직접 물어보면 스스로를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전 훈련(pre-training)되었으며, 일련의 언어 이해 및 생성 작업을 수행하는 언어모델”이라고 설명한다. 대화(chat)에 방점이 찍혀 있는,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채팅을 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라는 뜻이다.

챗GPT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고안된 서비스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의 장점과 한계까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장점은 당연히 사람을 상대하듯 자연스러운 대화의 느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며, 한계는 ‘대화 이상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개발사인 오픈AI도 홈페이지에 “(챗GPT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부정확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답을 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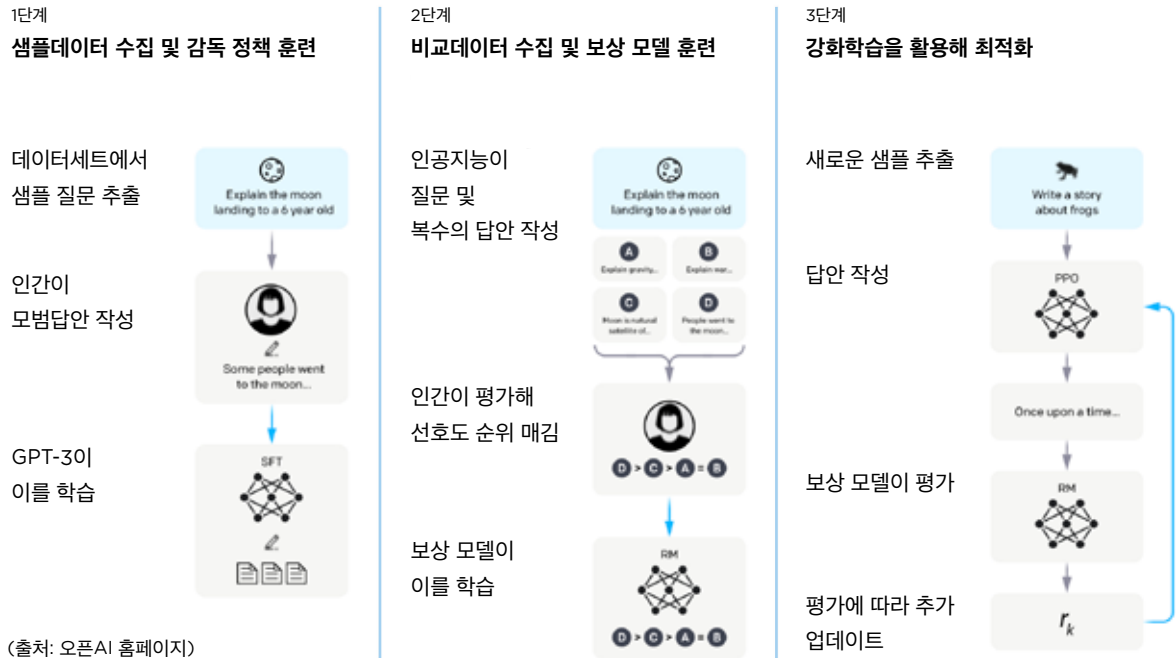
가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인공지능의 말하기 방법

챗GPT의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오픈AI의 설명에 따르면, 챗GPT는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사전학습된 자연어 생성자)라는 언어 모델의 세 번째 버전, 즉 GPT-3이 인간의 피드백에 바탕을 둔 강화 학습(RLHF)을 거친 결과물인 ‘인스트럭트 GPT(InstructGPT)’를 기반으로 문장을 생성한다. 개발자들이 직접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GPT-3에는 약 4990억 개의 ‘토큰(token; 기계가 학습 대상으로 삼는 일정한 뜻을 가진 문자의 최소 단위)’이 입력됐고(혹은 ‘학습’했고), 여기에는 2021년까지 인터넷 상에 공개된 방대한 양의 글과 도서가 포함돼 있다. GPT는 토큰마다 일정한 값을 할당해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한다. 수천억 개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를 좌표로서 기억하는 일종의 ‘지도’를 만드는 셈이다. 예를 들면 ‘얼큰한’이라는 토큰 가까이에 ‘해장국’이나 ‘라면’ 등의 토큰이 있을 확률은 ‘딸기케이크’가 있을 확률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방식으로 앞뒤가 맞는 적절한 단어를 골라내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을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라 부르며, 많은 대화형 프로그램이 이를 사용한다. 존 노튼 교수는 “(인공지능 대화 모델에게)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딛은 사람은?’이라고 물었을 때 이 모델이 ‘닐 암스트롱’이라 답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달 탐사의 역사나 아폴로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던진 질문 자체가 사실은 ‘방대한(영문) 텍스트의 집합 중에서 ‘달 표면을 처음으로 거닐었던 사람’과 함께 나타날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챗GPT는 그러한 작업을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훌륭하게 잘 해낸다. 이는 인공지능이 40여 개 계약 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이 직접 쓴 수많은 샘플 답변을 자신이 만든 대답과 비교해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다. 오픈AI는 챗GPT를 구동하는 인스트럭트GPT가 GPT-3에 비해 “훨

[그림1] GPT-3가 ‘인간적인’ 대사를 내놓는 챗GPT가 되기까지



진 나은 대화를 생성”하고, “답변을 덜 조작하며, 유해한 대사를 내놓는 빈도도 약간 줄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성과만으로도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할 만도 하다. 지나친 공포나 걱정 혹은 과도한 기대를 냉정하게 접어두고 나면, 이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며,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도록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더욱 생산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도우미로서의 인공지능 활용법

인터넷 뉴스매체 『슬로우뉴스』의 김낙호 편집위원은 2월 24일자 기사에서 챗GPT와 같은 도구가 ▲적절한 단어나 문형 찾기 등의 문장 쓰기 지원 ▲일반적인 글쓰기에서 기대되는 내용 중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기본’ 구조와의 비교 ▲내 글이 인공지능으로 뽑은 것보다 더 나아 보이는지 점검하는 품질 점검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썼다. 반면에 ▲아이디어 개발(GPT3의 구동 방식상 결과물은 “평범함으로 수렴한다”) ▲증거에 대한 사실 확인

(언어를 시뮬레이션하는 도구이므로 자연스러운 주장을 펼치기 위해 “증거를 생성·조작한다”) ▲아이디어와 증거 출처 맥락화(AI는 학습한 것을 새로운 언어로 바꿔 표현하는 식으로 작동하므로 “자료의 원 출처를 기억하지 못한다”) ▲개성(문체를 “홍내내는 데만 능숙하다”)의 측면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했다. 만약 “어떤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을 챗GPT에게 위탁한다면, 인공지능은 그저 “평범하고 알파한 흔적질, 수많은 가짜 근거, 출처 미표시로 인한 사실상의 표절 행위, 그리고 그저그런 평범한 문체로 채워넣은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존 노튼 교수 역시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챗GPT 활용법은 “인간의 역량을 늘려주는 도구 혹은 조수로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결국 우리가 정말로 감탄해야 할 부분은 인공지능이 사람 같은 대사를 줄줄 읊어대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매끈하게 정리해 내놓을 줄 아는 이 능력이 인간의 통찰과 결합될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다. 지난 3월 미국의 차세대 과학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STEM(과

[글상자] 챗GPT가 자신도 모르는 답을 내놓을 때 일어나는 일



제주어 '지술'을 이용해 시를 한 편 지어볼래?



지술 지술 바람이 스치는 밤 / 나는 저 별빛이 내리는 바닷가에서 / 멀리 서있는 그녀를 생각한다 // 하얀 모자와 흰 옷을 입은 그녀는 / 바다와 하나인 것처럼 가만히 서 있다. / 맑은 바다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 천사같이 아름다웠다. (후략)



'지술'이 무슨 뜻이야?



제주어 '지술'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술 지술 바람이 부는 밤"은 "바람이 스치는 밤"을 의미합니다.



'지술'은 '감자'라는 뜻인데, 어떤 근거로 바람이라고 했지?



제가 드린 답변이 틀렸다는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제주어 "지술"은 바람이 아니라, "감자"라는 뜻입니다. "지술 지술 감자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처럼, 주로 농경지에서 감자를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학·기술·공학·수학) 경시대회인 '리제네론 과학 인재 찾기 (Regeneron Science Talent Search)'에서 2등상을 수상한 여고생 에밀리 오카시오(Emily Ocasio)의 연구가 바로 그러한 사례를 보여준다. 오카시오는 1976-84년 사이에 『보스턴 글로브』에 실린 살인사건 기사 중 5천여 건을 골라내 GPT-3를 활용해 분석·분류한 뒤 “언론이 살인 희생자를 착하고 선한 ‘이상적인 희생자’로 묘사하는 빈도가 인종 및 성별, 민족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유튜브를 통해 그녀가 직접 설명한 바에 따르면, 오카시오는 ▲‘이상적인 희생자’ 모델이 인종·성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리라 가정하고(아이디어 개발 직접 수행) ▲조사를 통해 골라낸 기사를 일일이 FBI의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확인한 뒤(증거에 대한 사실 확인 직접 수행), 그렇게 선별한 기사 5천여 건의 내용에서 기본적인 사실 외에 피해자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등을 부연함으로써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킨 묘사가 있었는지를 GPT-3로 하여금 골라내 분석토록 했다. 인공지능은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으로 지시한 바를 정확히 수행해 그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오카

시오의 조수, 혹은 비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다언어적이지만 단일문화적인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인간의 역량을 늘려주는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챗GPT와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한층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가위’와 같이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신 과학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공평하고 윤리적이며 포용적인 접근을 강조해 온 유네스코로서는 이 훌륭한 도구를 그저 ‘잘 쓰는 법’ 이상의 조건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도구가 학습해 둔, 예컨대 GPT-3의 경우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약 8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지식이 애초에 얼마나 정확하고, 공평하며, 포용적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언어적인 측면에서 챗GPT는 이미 95개의 언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다양

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수민족 언어까지 포함해 지구상에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여전히 많은 숫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어를 포함해 그간 ‘언어 지원’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던 비주류 언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이 정도 수준의 언어 지원이 외국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어떤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와 해당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챗GPT가 95개의 언어라는 외투를 입혀 내놓는 말의 원천은 방대한 양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류 문화와 지식’ 일변도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베르겐대 디지털 내러티브 센터 소장이자 디지털 문화 분야 전문가인 질 워커 레트버그(Jill Walker Rettberg)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챗GPT를 “다언어적이지만 단일문화적(multilingual but monocultural)”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레트버그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이 인공지능이 ‘학습’했다고 자랑하는 4990억 개의 방대한 토큰은 애초부터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그리고 젠더 측면에서도 편중돼 있다. 이 토큰은 약 60%의 일반 인터넷 자료(‘Common Crawl’로 지칭)와 22%의 특정 사이트 내 자료(‘WebText2’로 지칭), 16%의 온라인 공개 도서, 3%의 영문 위키피디아 자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60%를 차지하는 일반 인터넷 자료의 51.3%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웹사이트로부터 추출했다. 여기서 세계 2.3.4위의 영어 이용 인구를 가진 인도.파키스탄.나이지리아의 웹사이트는 각각 3.4%, 0.06%, 0.03%에 지나지 않는다. 레트버그 교수는 이렇게 편중된 소스마저도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대답을 막기 위해 “흑인, LGBTQ+ 등 소수자 정체성을 지칭하는 단어”와 “성적인 단어들을 필터링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소수집단뿐 아니라 퀴어 문화나 동성결혼 등에 관한 합법적인 자료들도 함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22%를 차지하는 특정 사이트 내 자료 역시 편중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개발사는 여기에 활용된 자료가 미국의 뉴스 및 콘텐츠 리뷰.토론 사이트인 ‘레딧(reddit.com)’에서 3개 이상의 추천을 받은 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풍요롭고 다양한 우리 인류의 지식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다.

다양한 이야기는 다양한 문화적 토대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든 답을 내놓도록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에게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용기가 없다. [글상자]에서 보듯 챗GPT에게 사라져가는 우리의 제주어 ‘지슬’(감자라는 뜻)을 활용해 시를 한 편 지어볼 것을 부탁하면 금새 한 편의 시가 나오지만, 사실 이 인공지능은 ‘지슬’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해 재차 물어보면 그저 순순히 사과를 할 뿐이다.

인공지능으로부터 ‘쿨’하고 해맑은 사과를 받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씁쓸한 뒷맛이 남는 이유는, 설령 알고리즘이 더욱 개선되고 학습 자료의 폭이 극적으로 넓어지더라도 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유네스코가 2005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채택하고 이후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20세기 이후 갈수록 확대되어 온 언어 격차와 기술 격차 등은 이미 주류 문화와 그렇지 못한 문화 사이에 극복하기 힘든 골을 파 놓았다. 철저히 과소대표되어 온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의 수많은 꺼져가는 소수 문화들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있지 않는 한, GPT-3의 후손의 후손, 이를테면 GPT-500이 등장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공평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인공지능이 척척박사 같은 대답을 몇 초만에 내놓는 21세기에도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John Naughton. "The ChatGPT Bot Is Causing Panic Now - but It'll Soon Be as Mundane a Tool as Excel". **The Guardian**. 2023.1.7. theguardian.com
- Ryan Lowe and Jan Leike, "Aligning Language Models to Follow Instructions". **OpenAI**. 2022.1.27. openai.com
- 김낙호 "글쓰기의 종말? AI 지원 글쓰기 가이드라인 (ft. ChatGPT)" **슬로우뉴스**. 2023.2.24. slownews.com
- "Emily Ocasio". **Regeneron 2023 Science Talent Search 유튜브 영상**. 2023.3.12. youtube.com
- Jill Walker Rettberg. "ChatGPT Is Multilingual but Monocultural, and It's Learning Your Values". **jill/txt**. 2022.12.6. jilltxt.net

급변하는 시대, 과학과 역사와 교육에 관한 사색

봄꽃 향기와 챗GPT

추운 겨울이 가고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돌아왔지만, 급변하는 과학기술은 해가 바뀌기 무섭게 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희망과 걱정과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문사회·자연과학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명규 교수가 ‘챗GPT’와 함께 시작하는 새학기가 학자이자 교육자인 본인에게 어떤 감상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전해왔다.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상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진짜’를 체험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우리와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문명으로 보는 21세기’.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내가 2년 전부터 가르치는 과목의 이름이다. 21세기를 문명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수업이다. 오랫동안 한국의 근현대 변동을 연구해온 나는 과거의 유산이 현대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전망할 수 없으며, 역사는 ‘경로의존’과는 전혀 다른 ‘대전환’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서서히 진행되던 나의 이런 관심 전환이 더욱 뚜렷하게 된 것은 흥미롭게 읽은 두 권의 책 때문이었다. 한 권은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였다. ‘내일의 역사(History of Tomorrow)’라는 부제를 단 이 책에서 저자는 역사가가 과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포괄하는 변동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첨단과학기술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책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가 지수함수적이어서 21세기 어느 시점에 이르면 기존의 방식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을 질적 변화가 초래되리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는 이런 결정적 전환의 변곡점을 특이점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다가올 미래로의 변화가 얼마나 혁명적일지 힘을 주어 설명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생각의 변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였다. 모든 것이 단절되고 차단되던 시점에 나를 외부와 연결시켜 준 것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었다. 음식도 주문하고 지인들과 안부와 정보도 교환하면서 내 생활이 얼마나 기술 인프라에 의존되어 있는지 절감했고, 앞으로의 일상은 더더욱 이 새로운 과학기술문명의 자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예감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제도의 본질을 숙고하게 되었다. 문을 닫은 학교 앞에서 교육이란 무엇이며, 모이지 않고 가능한 배움의 방식은 없을지 자문해 보았다. 문을 닫은 교회를 보면서는 미래의 종교의례가 어찌될 것인지 관심이 갔다. 닫힌 공연장 너머로는 온라인을 통한 예술의 새로운 향유 방식이 눈에 들어왔다. 코로나 팬데믹은 일상의 불편함 속에서 미래를 다시 바라보는 각성의 계기였다.

2023년 봄, 서서히 학교는 과거 모습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변화의 영향은 크고 넓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디지털 소통에 입각한 상호작용 방식을 찾으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챗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이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오픈AI(Open AI)사가 내놓은 이 프로그램은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들이면서 산업, 교육, 문화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이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이 갑작스레 실감되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들이 쓴 보고서를 평가해야 하는 나로서도 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두어 달 가량 이런 저런 방식으로 채팅을 해본 결론은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글쓰기 실력과 자료정리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챗GPT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옳은 방식도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는 적극 활용하되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말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의 차이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실제 효과가 어떠한지는 두고 두고 살펴볼 숙제거리다.

계절의 순환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흐름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 마당에는 매화가 피어 옛 선비들이 남긴 글귀들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는 3년 만에 100만 명이 모인다는 광양 매화축제 뉴스도 들린다. 디지털의 편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 번잡한 현장을 찾아 나서는 까닭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아날로그적이어서 직접 바라보고 접촉하는 현장감을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일 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과 사찰, 탈춤, 판소리 등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공유하고 전승해온 아날로그적 자취에 기반한다. 과학기술문명의 놀라운 변화와 파급력이 ‘유산’이라 불리는 과거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주목해 볼 문명사적 주제 중 하나다. 이번 봄에는 꽃향기를 찾아 나도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인데, 챗GPT의 파장이 내 수업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쯤은 흥미롭게, 그리고 반쯤은 우려하며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Shutterstock.com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포럼: 전문가에게 듣는다 ①

지금 다시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올해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6·25전쟁(1950-53)을 끝내기 위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2022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661달러를 넘어선 사회의 일상에서 73년 전에 발발한 전쟁의 흔적이나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비무장지대(DMZ)를 찾지 않는 한 전쟁이나 분단을 직접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전쟁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교수

우리에게 6·25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자 참상이지만, 각국의 입장에 따라 같은 전쟁이라도 기억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예컨대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을 상대해 조선을 도왔다는 의미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으로 부르며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던 2020년 10월 23일에는 그 7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일인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부르고 있다. 과거의 전쟁이 오늘의 경쟁으로 소환되고, 참화가 아닌 승리로 기억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현충일과 6·25전쟁 발발일에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기념의 행사가 열리며, 미국에서 6·25전쟁은 베트남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라 불리기도 한다.

한편으로 전쟁은 세대 간에도 서로 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다. 미국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베트남전은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다. 베트남전에 대한 세대별 기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전을 직접 겪은 58-65세의 미국인은 젊은 세대들에 비해 최근의 이라크 전쟁을 포함한 갈등 자체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중장년층은 비록 군사적 충돌에는 반대했지만 미국의 국익을 중시하며 초강대국으로서 글로벌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고, 국가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군사력으로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와 달리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을 간접적으로만 인지한 젊은 세대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주의보다는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더 우호적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을 선호했다. 또한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의견에 다소 유보적이며, 국제정치보다는 국내문제에 더 집중하는 것을 선호했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미국 중장년층과 청년층 간의 인식 차이를 그저 ‘비둘기파’와 ‘매파’로 단순하게 구분 짓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는 학업과 취업, 육아와 사회참여라는 서로 다른 생애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세대 간에 나타나는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쟁이나 군사 갈등과 관련한 태도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전쟁을 직접 경험했고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에 따라 기성세대는 적극적인 현실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젊은층은 주로 간접적 정보와 지식에 근거해 유보적이면서도 이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세대 차이를 정치적 차이로 본질화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협력을 통해 이상을 현실화한 경험을 전수하고 정책 참여의 폭을 늘려가는 것이 아닐까?

6.25전쟁에 대한 기억은 냉전 진영에 따라 여전히 서로 다르게 기념되고 있고, 베트남전에 대한 기억은 세대에 따라 다른 경험과 태도를 만들어 냈다면, 유럽의 2차대전에 대한 경험은 또 다른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중심가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공

원에 가면 느낄 수 있듯, 독일은 ‘배제적 민족주의의 팽창’의 산물인 전쟁과 홀로코스트를 철저히 반성하고 이웃 국가인 프랑스와의 화해 노력을 통해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냉전으로 인한 긴장과 분단 상황을 넘어 마침내 독일 통일과 유럽의 통합을 이루었다. 독일의 자기 반성이 오랜 경쟁 관계에 있던 프랑스와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냈고,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 데탕트 노력이 동·서 유럽의 화해협력을 이끌어 냈으며, 그렇게 더 큰 정당성과 역량을 갖게 된 독일이 동·서 유럽의 통합을 추동함으로써 오늘날 유럽의 리더십과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패전국으로서 승전국들이 주도한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전쟁 범죄를 처벌받은 독일의 경우는 6.25전쟁이나 베트남전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 동독과 갈등하며 프랑스와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한 서독, 1960-70년대 소련이나 동유럽과 긴장을 완화하려 했던 독일과 프랑스의 노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있다. 바로 주변국을 우방국으로 만들어 협력을 얻고, 관계를 개선해 전쟁 발발 가능성을 줄이고, 지역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실제로 체제 차이를 넘어서 독일 통일과 유럽의 평화로운 통합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그 모든 노력을 한국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모두가 함께 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다가오는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포럼에는 워싱턴과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오타와, 시드니, 웰링턴, 마닐라, 앙카라 등지에서 6.25전쟁에 참전했던 16개 유엔 회원국들을 대표한 청년들이 참여한다. 베를린과 스톡홀름, 프라하, 바르샤바 등에서 의료지원국들의 청년들도 참여한다. 안으로는 남북 협력과 동아시아 평화를 경험한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협력을 통해, 밖으로는 세계의 청년들과 함께 미래의 협력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일이 지속된다면, 전쟁의 기억으로부터 평화를 만들어내는 적극적 힘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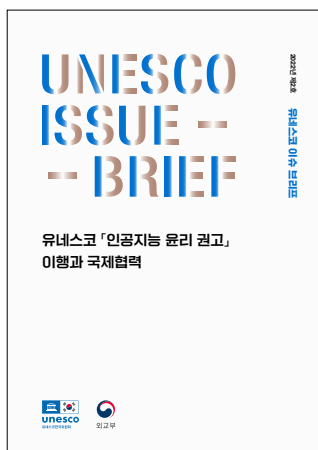
사진 설명: 독일 베를린 도심 한가운데 있는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해, 과오를 덮거나 가리지 않기 위해, 독일이 기울인 노력은 통일 독일과 유럽연합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2021) 이행과 국제협력

‘믿고 맡길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해

최근 ‘챗GPT’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제주도 여행 계획을 부탁하면 순식간에 깔끔하게 정리된 일정표를 제시하는 편리함에 감탄하다가도, 23+18이 41이 아니라 40이라고 우기면 금방 자기가 잘못했다며 사과하는 과잉 겸손함(?)에 당혹감을 느끼기도 한다. 덕분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유용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유네스코는 2021년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채택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난해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제2호)를 통해 그 내용과 정책제언을 소개한 바 있다. 해당 권고 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슈 브리프를 저술한 이상욱 교수가 그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 (과학기술철학)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제2호 읽어보기



최근 국제사회는 인공지능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 복지에 이바지할 잠재력이 있는 반면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차별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를 훼손할 위험 역시 갖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과 OECD는 2019년에 신뢰할만한(trustworthy)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윤리 원칙을 제시했고, 유럽연합은 이러한 윤리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현재 AI 윤리 법안을 마련 중이다.

유네스코가 2021년 11월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권고」(이하 「권고」)는 이런 국제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 인공지능처럼 ‘특정’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유네스코가 윤리적 규범 틀을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의 「권고」 채택은 그만큼 회원국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끼치는 영향의 중대함과 그에 대한 윤리적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권고」 채택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이전부터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관련 자율점검표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2년 발간한 『이슈 브리프』 역시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서 「권고」 채택 이후의 후속 조치와 국내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국제협력의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설명했다.

이슈브리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권고」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한 2절에서 초안 작성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제와 초안 공개 이후의 의견 수렴 및 수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을 비롯한 여러 집단의 다양한 관점이 어떻게 서로 보완과 절충을 통해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서로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되기 위함이다. 「권고」가 유사한 인공지능 윤리를 다룬 국제 문건과 비교해서 문화, 교육, 과학, 젠더, 정보 등 매우 포괄적인 영역과 주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담고 있다는 점, 추상적인 윤리원칙 제시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행동을 제시했다는 특징도 강조했다.



오늘날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유네스코의 「권고」 역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혁신과 사회적 공익 달성 모두를 위한 약속을 담고 있다

3절에서는 유네스코가 「권고」 채택 이후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국내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 「권고」가 제시하는 정책적 제안을 원론적으로 수용하는 회원국이라도 각국이 가진 정책적·제도적·경제적 환경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권고」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며, 이런 이유로 유네스코는 현재 각 회원국이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는 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준비 정도 평가(readiness assessment)’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고」는 또한 회원국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윤리 영향평가’를 할 것도 요청하고 있다. 이는 IEEE를 비롯한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말하는 ‘윤리적 설계 혹은 설계를 통한 윤리(Ethics by Design)’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이 윤리영향평가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본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는 공학자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가에게 유네스코의 「권고」는 ‘결끄러운 규제’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규제’를 곧 ‘혁신 저하’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술혁신의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 생각이다. 예컨대 1970년대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도입되려 할 때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해당 규제가 산업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것이라고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오히려 이 규제는 보다 친환경적인 내연기관을 개발하는 기술 혁신과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의 파생 기술 개발로 이어졌다.

이처럼 적절한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운용된 규제는 기업의 산업 환경을 바꿈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 의욕을 오히려 더 고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향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한창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앞으로 혁신 잠재력이 큰 AI 기술에서도 현명한 규제가 앞서 ‘적응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70년대 배기가스 규제와 마찬가지로 기술혁신과 사회적 공익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븐틴 팬미팅 '세븐틴 인 캐럿랜드'에서 펼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 홍보 활동

교육의 미래가 현실이 되는, 여기는 '캐럿랜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SPO DOME에서 그룹 세븐틴 (에스쿱스·정찬·조슈아·준·호시·원우·우지·디에잇·민규·도겸·승관·버논·디노)의 일곱 번째 팬미팅 '세븐틴 인 캐럿랜드'가 개최됐다. 세븐틴과 공식 팬클럽인 캐럿(CARAT)이 만난 3일간의 행사에는 세븐틴과 함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고잉투게더(#GoingTogether)'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참가해 부스를 열고 위원회 사업 및 교육 홍보 활동을 펼쳤다.

송현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기자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한위)는 부스를 찾는 팬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위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세븐틴과 함께 하고 있는 ‘#GoingTogether’ 캠페인의 의미가 담긴 엽서와 투명 포토카드를 배부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육 및 문화의 중요성을 담아 만든 서체인 ‘봉봉이체’를 활용한 이벤트도 알렸다. 봉봉이체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세계 교육의 날을 맞아 공개된 서체로, #GoingTogether 캠페인에 동참한 기부자에게 배포되고 있다.

평등한 교육을 위한 세븐틴의 관심에 부응한 ‘캐럿’들은 부스에서 받은 투명 포토카드와 함께 팬미팅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각종 SNS에 업로드하며 #GoingTogether 캠페인을 알리는 데 동참했다. 부스에 설치된 포토존에는 긴 줄이 늘어설 정도였다. 포토존에서 교육의 미래와 관련된 여러 낱말이 적힌 소품을 들고 사진을 찍은 팬들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계정을 표시(태그)해 SNS에 업로드하며 교육의 미래에 대한 모두의 관심을 요청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식 계정을 팔로우한 팬도 있었고, 몇몇 팬은 배너 속 QR코드를 스캔하여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기부를 하고 봉봉이체를 내려받을 수 있는 ‘봉봉이체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세븐틴 팬미팅에 참석한 한 팬은 세븐틴을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알게 되었다며 #GoingTogether라는 의미 있는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하고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세븐틴이라는 아이들이 가진 영향력이 선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팬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육의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며, 앞으로 다른 캠페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8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븐틴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 세계에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븐틴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GoingTogether 캠페인은 지속 가능한 교육과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이를 통해 미래를 변



“
아이들이 가진 영향력이
선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팬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요

화시킬 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EducationCanChange_’ 캠페인을 확산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해진 세계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 속에서 모두가 교육의 기회를 가지는 세상을 꿈꾸며, 세븐틴은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세븐틴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캐럿은 배움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문해력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세븐틴의 선한 제안에 적극 동참했다. 사랑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모습을 행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애정과 사랑만큼이나 교육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해 본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여기, 평화를 마주하고 세계 시민으로 서다

유네스코는 각 영역의 사업 이행 및 교육·연구 활동을 위해 세계 각지에 다양한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유네스코가 직접 운영하는 산하 기구는 ‘카테고리 1 센터’, 유네스코의 승인을 받아 회원국이 운영하는 협력기구는 ‘카테고리 2 센터’로 불립니다. 한국에는 현재 7곳의 ‘카2센터’가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2000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카2센터입니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역량을 기르는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곳을 청년기자단이 찾았습니다.

김동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기자단

‘Paz’, ‘Peace’, ‘へいわ’ 등 세계 여러 나라 말로 ‘평화’라는 뜻의 낱말이 적힌 동판들이 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부터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이하 아태교육원)까지 길을 안내합니다. 아태지역의 교사, 학생, 교육관계자 등이 이 평화의 동판을 딛고 걸어와 센터 문을 두드립니다. 아태 교육원 너머로는 국제 문화 예술거리인 ‘구로드웨이’와 다양한 문화 음식이 기다리는 국제음식문화거리가 보입니다. 센터는 경기도 이천과 서울 명동을 거쳐 2010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의 협정으로 설립된 아태교육원은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학습자들을 ‘생각하고 공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으로 양성하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을 위한 전문 기구입니다. 유네스코의 전 세계 26개 교육 부문 카2센터 중 유일하게 세계시민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태 교육원을 향해 연수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찾는 교육 관계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태교육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 간 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현재 훈련 워크숍, 국제 교사 교류 등 국제이해 및 세계시민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GCED 온라인 캠퍼스'나 '청년연수 유스 온라인 포럼'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창구입니다. 아태교육원 주최로 올해 5월에는 청년 연수 유스 포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포럼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니 이 기회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태 교육원은 또한 매년 5.9.12월에 영문 간행물 『Sansaeng(상생)』과 사진집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간된 58호는 GCED 청년네트워크 소속인 우크라이나인 발레리아 모로츠씨가 직접 찍은 탱크 사진과 함께 평화의 글을 실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원격교육, 포럼, 간행물 등 아태 교육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구나 세계시민교육에 다가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태교육원의 임현묵 원장이 꼽은 올해 핵심 사업은 '투트랙 연수'입니다. 여러 연수 프로그램은 아태교육원의 주력 사업이며, '투트랙'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수의 장단점을 함께 살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제는 연수를 그간의 비대면 중심에서 대면으로 전환해 정상화하면서도, 유연한 교육 일정 조절이 가능하다는 화상 연수의 장점도 더 잘 살릴 예정입니다. 교육 교류 역시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다문화 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 교류 사업(APTE)'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아태 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과 아태지역 국가 양자간 교육 교류 사업으로, 2023년 현재 아태지역 7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에서 양국 교사가 현지 학교에서 3-5개월간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며 현지 학생 및 교사들과 교류합니다. 국제교사교류실의 임원진 실장은 "아태교육원의 교

육교류사업은 교사를 세계시민으로 만들어 세계시민교육을 현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라오스에서 특수교육이라는 전공을 구별하지 않는 새로운 교육관을 만났고, 해외에서 소수자가 되는 경험을 통해 다문화 가정 제자들을 이해할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교류 사업은 이러한 장점을 살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장소는 역시 도서관과 회의장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아태교육원이 발행한 책자들과 더불어 여러 교류 대상국의 현지어로 만들어진 교과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벽면의 장식품에서 아태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1층에 있는 청소년 대상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회의장을 찾아 봅니다. 실제로 유네스코 회의에 사용된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한 소품들로 꾸며져 있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난민이나 기후위기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주제로 토론을 펼칩니다. 회의장 옆에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MBTI나 방탈출 게임을 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을 익혀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시민여권'을 손에 꼭 쥐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된 퀴즈들을 맞춰가며 세계시민의 길에 다가서 봅니다. 최초의 카테고리 2센터로서 출범한 역사부터 청년과 교사, 청소년이 함께하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태교육원은 세계 교육의 허브로서 세계시민의 공론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평화를 말할 용기를 갖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도림역에서 아태교육원으로 이어지는 길 위의 '평화' 동판

사진 설명: 지난 2월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와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SEAMEO) 대표단이 아태교육원을 방문해 두 기관의 고등교육 역량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아태교육원은 다양한 교사 연수 및 자문을 통해 지역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출처: 아태교육원 페이스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0주년의 결정적 숫자들 ①

숫자로 남은 기록, 마음으로 남은 열정

2024년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한위)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은 1950년 6월 14일에 유네스코에 가입했지만, 그 직후 발발한 6·25전쟁이 끝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설치령이 공포되고 한위가 창립하기까지 4년을 더 기다렸던 셈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험난했지만, 오늘날 한위는 그 어느 국가위원회보다 활발하게 국내외에서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네스코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년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한위의 어제와 오늘을 빛낸 ‘숫자’들을 이번 호부터 차례로 소개합니다.

1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을 가능케 한 ‘공평한 1표’

잘 알려졌듯이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합법 정부로 인정받은 직후인 1949년 1월에 유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같은해 4월 8일, 이미 냉전의 그림자가 유엔 체제에도 깊게 드리운 상황에서 당시 소련은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유엔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한국의 꿈은 좌절되고 맙니다.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함께 동시에 유엔 가입을 승인받기까지는 무려 4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도 잠시, 유엔 가입이 좌절된 한국은 1950년 6월 14일에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 가입에는 성공하게 됩니다. 이 기적같은 일을 가능케 만든 것이 바로 1국가당 1표씩의 투표가 모두 평등하게 인정받는 유네스코의 원칙이었습니다. ‘거부권’이라는 강대국만의 특권이 보장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1표는 그 외 모든 회원국의 투표를 압도할 수 있지만, 유네스코에서는 열강 간 대립 구도와 관계 없이 회원국 3분의 2의 득표만 하면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1950년 5월 25일에 열린 제5차 유네스코 총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한국은 찬성 27, 반대 1, 기권 4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유네스코 가입에 성공하게 되었고, 해당 결의에 따라 6월 14일자로 유네스코의 55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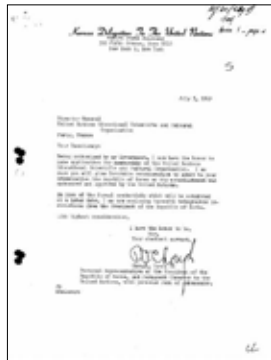


사진 설명: 1949년 7월 5일 조병옥 유엔대표단장이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신청 서신 (사진: 유네스코본부 아카이브)



2

가입 2주 만에 벌어진 전쟁 속에서 찾은 희망

천신만고 끝에 성공한 유네스코 가입을 축하할 겨를도 없이, 한국은 유네스코 가입 후 단 2주, 불과 11일 만에 6·25전쟁의 참화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유네스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국가위원회의 설립도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전의 유네스코 가입은 그 자체로도 한국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전쟁 속에서도 한국의 교육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네스코가 지원한 교육 재건 사업들은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때를 극복하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준, 무엇보다 특별한 선물이자 행운이었습니다.

사진 설명: 1952년 전쟁 중인 한국에서 학생들이 야외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 유네스코 본부 아카이브)

대한민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3곳 등재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산이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탄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쁨은 이후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세계유산 숫자는 그 이후 꾸준히 늘어 2023년 현재 '14'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뿐인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여러 유관 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무형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유산 등재뿐만 아니라 보호 노력에도 앞장서는 '문화 강국'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사진 설명: 199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



한국에 있는 세계지질공원은 현재 네 곳

인류의 소중한 문화와 기억, 또는 자연과의 공존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유산 외에도 유네스코는 '세계지질공원'을 통해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단지 보호만이 아니라, 그러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의 지질유산을 활용한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데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0년에 지정된 제주도를 시작으로 2017년 청송, 2018년 무등산권, 2020년 한탄강에 이르기까지 총 4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설립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 사진설명: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해외 유출 문화재를 찾기 위한 5개년 계획 첫 실시

옛날부터 수 차례 큰 전쟁을 겪었고, 오랜 식민 지배를 겪은 한국에서는 수많은 문화재가 불법으로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후 「전시문화재 보호협약」(1954년)과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등 유네스코가 여러 문화재 보호 관련 협약을 채택하면서 특히 식민지배를 겪었던 많은 나라에서는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1982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도로 사상 처음으로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5개년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비록 조사 규모와 예산의 방대함 때문에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 사업은 당시 우리나라 유출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1983년에 한국이 「문화재 불법 밀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에 51번째로 가입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사진설명: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약탈당한 뒤 2011년 5월 한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 중 조선왕조 의궤에 실려 있는 '반차도' (사진: 문화재청)



포용과 다양성 위에 일어난 학교의 변화

세상 어디에나 ‘내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인류의 지속가능발전과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유네스코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교육 변혁을 요청하며, 특히 교사들이 그 변혁의 중심에 서길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열린 세계교육변혁정상회의(Transforming Education Summit)에서 ‘#TeachersTransform’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다양한 경로로 우수 사례 및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임팩트 스토리’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원문 번역 및 윤문 『유네스코뉴스』 편집진

그들은 네게 앉으라 하지 바로 여기에 / 그들은 네게 해임 치라 하지 바로 이렇게 / 그들은 네게 먹으라 하지 짹짹 비워서 / 하지만 이걸 알아 뒤 아가야, / 그들은 네 지식을 지울 순 없다는 걸. / 절대 네버 멈추지 마 너의 배움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가 흑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던 시절, 어느 소외된 마을에서 아들인 세인트 클레어 아드리안을 기르며 어머니는 늘 이렇게 흥얼거렸습니다. 이후 포트 엘리자베스 대학(이후 넬슨 만델라 대학이 됨) 최초의 흑인 졸업생이 되고 35년간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세인트 클레어 씨는 어머니의 그 말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회복과 포용, 다양성은 그가 교실에서 늘 지키려고 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고, 언제나 배움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부색이 어떤 학교나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하던 곳에서 자랐어요. 소외되고 차별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 그래서 내 학생 중에는 그 누구도 소외받거나 열등하다거나 성공할 수 없



기사 원문 읽기(영문)

는 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려 했어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세인트 클레어 씨는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그들이 어떤 인생을 선택 하든 힘과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인트 클레어 씨는 2008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석세스 예비 학교(Success Preparatory Academy) 교장으로 임용됐습니다. 이 학교는 주에서 가장 열악한 동네에 있었고 학생 성적도 가장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뒤에 이 학교는 루이지애나주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열 개 학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회복적 접근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세인트 클레어 씨는 학교 변화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은 바로 열정적인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 학생이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만큼 교사 역시 다양한 종교와 인종과 성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학생들과 관계맺기가 가능하고, 그들과 공감하면서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의 이러한 철학은 근거 없는 짝맞추기가 아닙니다. 유네스코의 『2020년 세계 교육 현황보고서』는 특히 소수 집단의 경우 학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의 교사가 학생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곳을 강타한 이후 아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는 쉽게 분노로 바뀌곤 했어요. 그래서 학교 담장 한 면에 커다랗게 ‘우분투(UBUNTU)’라 쓰인 벽화를 그리게 했어요. 우분투는 ‘서로에게 기대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남아공의 철학입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학생이 나올 때마다 그에게 붓 한 자루를 쥐어주고는 분이 삭을 때까지 마음껏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세인트 클레어 씨는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표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음악 프로그램도 바꾸었습니다. “학생이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 좋은 음악만한 것이 없다”면서요. 실제로 음악은 학생의 언어와 수학 성적 향상에 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인트 클레어 아드리안 교장선생님(오른쪽)과 수업 시작 전에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는 석세스 예비학교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매일 아침마다 함께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선언을 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가치를 살려 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것이지요. 각자의 기념이 될 만한 일을 기념하는 것도 잊지 빼놓지 않아요. 예를 들어 95점에서 97점이 됐든, 35점에서 37점이 됐든, 모두가 이를 축하해 주는 거죠. 단지 성적이 나아졌다는 것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학생의 삶을 바꾸기 위한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뉴욕으로 일터를 옮긴 세인트 클레어 씨는 새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기초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모두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지요. 세인트 클레어 씨는 그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학교에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세탁실을 설치했죠. 의류 은행과 식품 저장고도 만들었어요.” 또한 이렇게 덧붙이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습자들이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교사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도 자신을 위한 자리는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단지 자기 배경때문에 ‘아무데도 속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엔대학교 박종휘 박사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시작하세요

서지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기자단

— 안녕하세요 박사님. 먼저 지금까지 거쳐오신 기관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육에 관한 공부를 이어오던 중 사회적 기여가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유네스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의 테크놀로지 활용교육(ICT in Education) 팀의 리더로 2011년부터 7년 반 근무했습니다. 당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언에 힘썼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교육부와 많이 소통했습니다. 덕분에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에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대해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 몸담게 된 유네스코 평생교육원에서는 문해 및 성인 교육에 ICT를 활용할 방법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유엔 대학교(UNU)에서 파견근무 중이며 혁신 교육 프로그램(Innovation and Education)의 부서장으로 활약하며 교육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반을 아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좁은 한국땅을 벗어나 국제기구에서 더 큰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유네스코와 직·간접적으로 연을 맺고 조직 안팎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배의 이야기는 좋은 본보기이자 새로운 도전을 향한 힘을 북돋워 줄 것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기자단이 그런 ‘롤모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 주요 사업들이 모두 ‘교육’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가지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과학과 문화 등 다른 분야를 바라보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문제, 문화 다양성 소멸의 문제 등 많은 국제 사회의 이슈를 해결할 힘이 ‘교육’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유엔대학에서 진행 중인 라오스 무형문화재 보존 프로젝트가 교육을 통해 문화재 보존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낸 사업 중 하나인데, 이러한 성과에서 교육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진행 중에 국제기구의 한계를 느낀 사례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기구의 주요 역할은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회원국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노

박중휘 박사는 현재 일본에 소재한 유엔대학교(UNU)에서 혁신 및 교육 프로그램 부서장(Head of Innovation and Education Programme, P4)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약 8년간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와 유네스코 평생교육원에서 테크놀로지 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력과 별개로 그 성과는 각 국가의 정치적인 의지와 리더십,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점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유엔 자체의 구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네스코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구들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각각의 목표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다음 프로젝트도 이러한 유엔 산하 기구 간 소통 부족 및 경쟁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여러 유엔 산하 기구와 전문가들이 융합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성인들을 위한 기후변화 문해력 측정지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첫걸음을 딛고 싶습니다.

—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직원으로서 국제기구 내 한국의 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CT 분야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K-문화가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관심을

가지며 정책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회원국 정부관계자가 많아서 자긍심과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다만, 유네스코에 한국인 고위직 직원이 없어서 의사결정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점이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으로도 한국인 직원수가 많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무조건 시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겁내지 않고 우선 시작하면 항상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와 패기를 갖고 시작했을 때 얻어지는 경험의 가치를 꼭 느끼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故) 김광조 전 유네스코 방콕 본부장님께서 '작은 일에도 항상 정성을 다하면 그 경험이 꼭 쓰일 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 더 현실적인 조언으로는 유엔 공식 언어 중 하나를 제2외국어로 익혀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주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생태탐험 프로그램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꿈을 키우는 생태탐험대

제주 서귀포의 하례마을은 우수한 생태환경과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2014년에는 환경부로부터 하례마을과 효돈천이 국가 생태관광지로 선정됐고, 하례리 생태관광마을협의체는 이 아름다운 환경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주민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경진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사무국장



제주만의 독특하고
소중한 환경을
돌러보는 탐험대원들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의 ‘생태탐험대’는 마을의 자원을 생태교육장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 함께 주체가 되어 교육현장으로 찾아가는 생태환경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및 마을이 상생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마을 주민과 인근 초등학생들이 하나의 교육공동체가 되어 이론교육 및 현장학습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소중함과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한 애착을 느끼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마을에 있는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생태활동과 생활을 하며 이를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그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우수한 환경 자원의 현명한 활용을 위한 환경보전의식과 정서를 함양합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 내



마을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이 생태탐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



학교와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농사만 지어오던 마을주민들이 매주 2회씩 12차시의 교육을 받은 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 접해보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과 호흡을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직을 스스로 만들고, 각자의 역량을 높여 다양한 생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례초등학교가 건강생태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교와 주민들의 교육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건강생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9명의 마을 주민들은 각 학년군을 대상으로 생태환경주제를 선정해 학습 계획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자연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열정은 중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다혼디 수색대'라는 프로그램 개발로도 이어지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생태교육과정 운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혼디 수색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태 기록 탐사프로그램으로, 참가 청소년들은 서귀포에 분포된 자연자원 및 환경 특성을 고려한 생태기행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보전 상태를 기록해 생태교육에 필요한 활용방안 등을 모색해 봅니다. 학생들은 제주를 대표하는 독특한 생태계 중 하나인 곳자왈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 보기도 하고, 제주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인 용천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용천수의 의미를 홍보하는 콘텐츠도 개발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의미와 생물다양성을 모니터링하고 보전하는 역할에 참여하는 등 환경을 위한 다양한 실천운동을 펼쳤습니다.

내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키워 나가는 환경에 대한 애착과 보전 노력은 지구촌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하례리는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교육 현장의 주축이 되어 생태환경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ESD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용천수가 나오는 곳을
찾아 그 역사·문화적
가치와 자연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ESD 실천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ESD 공식프로젝트'로 선정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시집 인세 기부한
경북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배움에서 찾은 고마움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배움의 즐거움을 늦게나마 다시 느끼고 있는 학생인지 모른다. 그러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경북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학교장 유석범) 1학년 학생들은 만학도의 즐거움과 감동을 담아 시집 『백 마디 고마움』을 펴냈고, 지난 2월 1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그 인세를 기부했다. 1학년 학생 113명을 대표해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한 기부자들을 만나 배움에 대한 갈망과 교육을 통해 새롭게 꿈꾸게 된 희망, 그리고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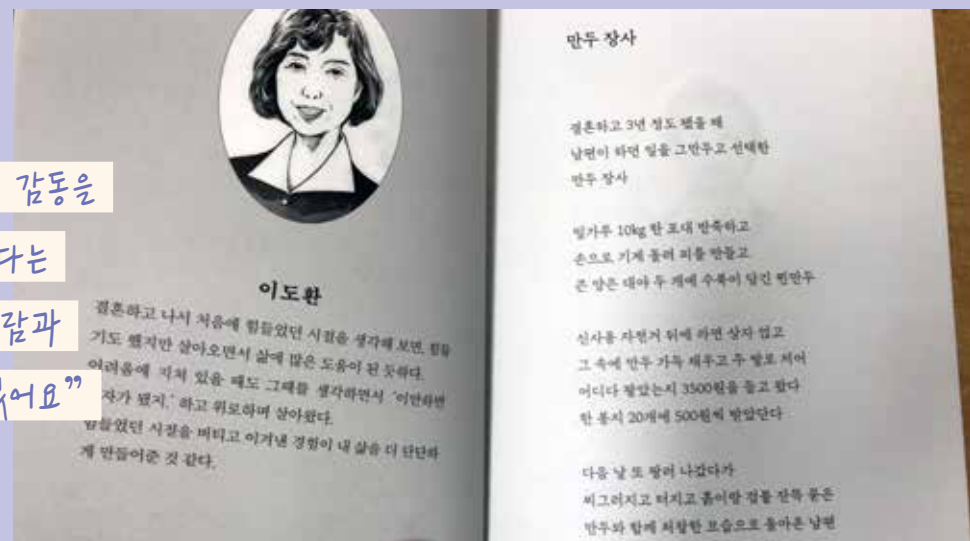
인터뷰 진행 및 정리 후원홍보센터

“우리만 이 감동을

간직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어요”



먼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하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재서(73) 어려서는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그 뒤로 배움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어요.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이제라도 그런 질문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만학도들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도환(69) 그 시절,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다 해 보는 것이잖아요. 학교 가는 날 아침부터 얼마나 마음이 들뜬는지 몰라요. 학교 생활이 삶의 활력소이자 원동력이예요!
박경옥(67) 저는 학교에서 옛날 교복을 빌려 다 같이 입어 보았던 교복 체험을 특히 잊을 수 없어요. 어려서 빨래줄에 널려있는 교복이 얼마나 부럽던지, 동생 교복을 몰래 입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교복을 직접 입어보고 그 시절 노래인 ‘여고시절’을 함께 들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목이 메어요.

학생들의 그런 느낌과 감성을 모아 시집을 출간하셨는데요. 그 소감이 어떠셨나요?

김명희(67)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이렇게 내 이야기를 담아서 시를 쓰고 그걸 시집으로 출간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정말 특별한 선물이자 기회였어요. 그 정도로 큰 감동이었기에 그 느낌을 우리만 간직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져서 이렇게 의미 있는 기부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를 쓰고 그것을 책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선생님께서 이런 수업을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인영 교사 이분들의 인생을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일로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곤 하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행복한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선택이 중요한 이유이지요. 그런

점에서 방통고 학생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환경에 꺾이지 않으셨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공부하고 계신 그런 삶을 칭찬하고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기부처 중에 특별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강성귀(58) 국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맨 앞에 나오는 문구를 읽어주셨어요. “교육을 통해 꿈꿀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주세요.” 그 문구가 마음을 움직였죠. 유네스코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솔직히 자세히는 몰랐는데 오늘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 식량이 아닌 책을 보급함으로써 교육에 힘썼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인세도 그런 일에 쓰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가수활동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소외된 분들을 위해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후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이번 기부를 계기로 유네스코에 하실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도기(66) 저는 제때 학교에 다니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책도 냈으니 자신감을 갖고 떳떳하게 살려고요. 오늘 한경구 사무총장님께서 새로운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지금은 시 한 편을 썼지만 졸업할 때는 제 이야기만으로 책 한 권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최인영 교사 저희 늦깎이 학생들에게 귀한 경험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걸 시로 쓰는 과정에서 ‘고마움’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렇게 출간한 책의 인세를 의미 있는 일에 기부함으로써 ‘고마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부를 계기로 저희 학생들과 유네스코의 아름다운 인연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대곡천 암각화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회 포럼이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국회의원 이상헌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대곡천 암각화군은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심사를 위한 국내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포럼은 이 유산이 하루 속히 국제 무대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전문가 진단 및 정책 제언 제시를 위해 기획됐다. 포럼에서는 울산시의 현황 보고에 이어 반구대 암각화 및 국내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유산의 등재 추진 과정에서 그간 부족했던 점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대곡천 수위 조절을 비롯한 시급한 관리보존대책을 보완하고 차기 등재신청후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산 신청주체와 각계 전문가가 협업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반구대 암각화'로 잘 알려진 해당 유산은 신석기시대 한반도의 독특한 해양수렵생활부터 신라인들의 생활 모습까지 다양한 시기의 생활상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보기 드문 암각화로서 일찍부터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국보 147호 천전리 암각화와 국보 285호 대곡리 암각화로 구성되어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인턴십 업무협약 체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와 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월 10일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한경구 사무총장과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장이 체결한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생들은 여름 및 겨울방학 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인턴십 참가자들은 한위가 펼쳐는 사업활동에 직접 참여·경험하면서 유네스코 활동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화순 '키즈라라'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업체험관 설치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전남 화순 도곡온천관광지에 개관한 어린이 교육·문화·놀이공간인 '키즈라라' 내 '어린이직업체험관'에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스를 설치했다. 3월 10일에 개관한 키즈라라는 '아이들(kids)'과 '흥겹고 즐거운 삶을 살 길'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라라'를 더해 만든 이름을 붙인 어린이 테마파크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128㎡(2천459평)규모다.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를 표방하는 키즈라라에는 약 30개의 직업 아이템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직업체험관'과 영유아들을 위한 '영유아체험관' 등이 있으며, 어린이 직업체험관에는 소방관과 경찰관을 비롯해 유투버, 치과 의사, 은행원, 여행플래너, 아나운서 등 30여 개의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돼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키즈라라는 유네스코 체험콘텐츠 개발과 어린이 교육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연례회의 개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3월 28일 오후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2023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개최했다.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창립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2023년도 국내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의 주요 활동과 운영계획을 공유한 이번 회의에서 한경구 사무총장은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를 통해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마음에 평화의 방벽을 세우고 평생학습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고, 온라인 축사를 보내온 교육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사진)은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교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 담당자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준희 서울문성초등학교 교장, 윤지은 태전고등학교 교사는 발표를 통해 2022년도 유네스코학교 활동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동 회의의 녹화본은 유네스코학교 웹사이트(asp.unes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라위 사이클론 피해 복구 위한 긴급 지원 나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한위)가 최근 사이클론 '프레디'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말라위의 교육 환경 복구를 위해 기존 '브릿지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기금 20만 달러를 서둘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부터 말라위를 비롯한 사하라 이남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양적·질적으로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브릿지 사업을 수행해 온 한위는 사이클론으로 인한 말라위 현지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지역교육센터 설립 및 커리큘럼 개발 등을 위해 준비해 둔 올해 예산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한경구 사무총장은 "70년 전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허약해졌을 때 유네스코는 우리에게 책을 줬다"며 "이번에 말라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인류 공동의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3월 21일 기준으로 말라위에서는 사이클론으로 인해 사망자 507명, 부상자 1332명, 실종자 537명이 발생했다. 또한 55만명 가량의 이재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소 437개 학교가 파괴되고 307명의 교사들도 교육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공모 안내

글로벌 교육 의제인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을 한국적 맥락에 걸맞게 이행하는 '한국형 ESD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Korean UNESCO ESD Official Project, 이하 ESD 인증제)가 2023년도 공모를 추진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한국 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ESD 사례를 발굴·인증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ESD 인증제는 작년까지 총 158개의 프로젝트를 인증한 바 있으며, 그중 84개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ESD 인증제 공모를 추진하오니, ESD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공모 내용 확인하기

문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

김보영 선임전문관

(02-6958-4108 / esd@unesco.or.kr)

※ 원활하고 효과적인 공식프로젝트 활동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신규' 프로젝트 공모 및 인증을 격년으로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글을 읽는 것은 세상을 읽는 것입니다.”

2023년 2월에 모아주신 후원금 31,646,919 원은

개발도상국 교육지원을 위한 브릿지 사업과

유네스코 문화 사업에 사용됩니다.

후원전화 1800-9971

후원계좌 국민은행 375301-04-106542

(예금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반대중/학교 후원금

유네스코 교육 및 문화 사업 (87%) 27,532,820 원

모집경비 및 행정비 (13%) 4,114,099 원



◀ QR코드로 간편하게 후원하세요!

기업/고액후원

Smilegate®



삼일미래재단

정기후원

신규 정기후원 신청자 (2023. 2. 1 - 2. 28)

박광호 정미자 정재범 최병용 황병두

기업/단체

(주)김치빌리아드 김종율
(주)어반비즈서울 박진
(주)영진제어 이욱한
(주)오오씨엘코리아 김현정
(주)워킹피킴퍼니 연재창
(주)유니크테크노 양원준
(주)커피비평가협회 박영순

(주)케미원 박세형
(주)코젠바이오텍 남용석
경기대학교UN청년연합회 강동렬
남영산업 정종관
디자인벽지(주) 남영식
류와건축사무소 류종미
링즈영어학원 김정희

변호사이동환법률사무소 이동환
삼광씨앤비주식회사 고시웅
상신정보통신(주) 송진규
세무법인 비전 대전지점 이재우
세무사 이행중사무소 이행중
순복음좋은교회 문종명
크라운호프 운서센트럴시티점 권재홍

태웅건설주식회사 홍재현
ASPIRE고려대학교지부 강동렬

희망나눔가게

(주)제스아이티(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석오
금산주유소(경상남도 양산시) 안준용

대도식당 안양점(경기도 안양시) 김홍숙
대흥포장(주)(전라북도 전주시) 이주봉

개인

김도경	김미리	강영욱	강준근	고남균	고유경	공유훈	구영미	권소연	권태현	김건희A	김광호	김기홍	김남춘	김덕훈	김동희	김명삼	김미정A
강경숙	김미숙	강영희	강형빈	고미정	고윤서	곽미진	구정일	권오규	권혁연	김건희B	김교정	김기환	김다솜	김도진	김두례	김명신	김미정B
강군석	김미영	강윤서	강혜경A	고민정	고윤철	곽병준	구진근	권오목	금나영	김경범	김궁희	김길원	김다영	김도훈	김두용	김문원	김미현A
강규한	강민선	강은희	강혜경B	고민준	고지숙	곽상우	권다윤	권은주	기미라	김경섭	김귀배	김길현	김다현	김동균	김두준	김문정	김미현B
강대성	강병규	강정모	강해린	고민철	고진아	곽우실	권도형	권의재	김가비	김경진	김근희	김나라	김대복	김동선	김두현	김문환	김미화
강대용	강보성	강준호	강혜영	고승용	고태완	곽재윤	권묘정	권정란	김가희	김경철	김금슬	김나연A	김대식	김동진	김마로	김미선	김민상
강대중	강상규	강지성	강효정	고영권	고행호	곽진	권미숙	권진숙	김강자	김경희A	김금준	김나연B	김대왕	김동철	김만석	김미연	김민석
강동진	강상원	강지원	계세협	고영수	공남희	구기현	권미희	권진옥	김건	김경희B	김기찬	김남규	김대현A	김동현	김만수	김미영	김민이
강문선	강성원	강지호	고건우	고예지	공성필	구동관	권부연	권진택	김건호	김고은	김기태	김남수	김대현B	김동호	김명국	김미원	김민정

김민주	김욱	김재은	남옥임	박선우	박평호	설봉규	신정숙	연장미	윤대준	이복락	이윤주	이형선	장재은	정재윤	조효신	최은성	한유미	
김민지	김옥경	김철리	남운성	박선주	박하나	설옥경	신정민	연재창	윤미란	이복연	이은선	이형철	장정식	정재천	주기승	최용주	한유희	
김민호	김옥신	김철민	남유선	박선화	박현숙	성경환	신종범	염경화	윤병순	이상국	이은선	이혜경A	장재우	정재한	주명욱	최원만	한정윤	
김범석	김용배	김철호	남유승	박선희A	박현주	성모진	신지애	염광민	윤성호	이상민	이은솔	이혜경B	장준서	정정일	주상현	최유진	한정화	
김병길	김용선	김지훈	남윤아	박선희B	박현출	성백재	신지영A	오경효	윤석주	이상용	이은숙	이혜경C	장지원	정종필	주세영	최은숙	한향림	
김병노	김용순	김태규	남정덕	박성민	박형준	성선조	신지영B	오광래	윤석훈	이상원	이은주A	이혜영A	장진호	정준호	주영아	최윤지	한호	
김병수	김용일	김태우	남정순	박성진	박효빈	성재훈	신지원	오남고	윤석민	이상진	이은주B	이혜영B	장차열	정중현	주종민	최은숙	함미애	
김병훈	김용호	김태우A	남지현	박세진	박훈	성지연	신진희	오대석	윤성숙	이상철	이은화	이혜지	장희명	정지선	주종보	최은용	함영희	
김보옥	김용희	김태우B	남진영	박소연	박홍순	성한제	신찬의	오덕주	윤소정	이상훈	이은민	이홍균	전경숙	정지숙	주준호	최은정	함영태	
김복한	김우혁	김태우C	남현령	박소현	박홍제	손명호	신현운	오명열	윤영민	이상희	이은재	이홍균	전경숙	정지연	주진봉	최장명	함진숙	
김봉균	김옥태	김태웅	노다경	박수경	박희진	손상호	신해림	오미경	윤영서	이서연	이일순	이홍근	전명숙	정지영	주현성	최재명	함현수	
김봉해	김원규	김태인	노영란	박수원	방성주	손석희	신훈철	오소녀	윤전배	이서현	이재건	이홍린	전미선	정지윤	지덕규	최재연	허경옥	
김부열	김원식	김태현	노지원	박속희	방영복	손석주	심미순	오소향	윤정배	이석만	이재관	이홍숙	전민화/	정진우	지현재	최재혁A	허남숙	
김상구	김원철	김태호A	노진희	박소래	방정학	손옥수	심미옥	오수길	윤종열	이석우	이재권	이후승	전민호	정찬주	지형두	최재혁B	허명호	
김상만	김유남	김태호B	노정남	박승기	배권호	손용관	심상용	오승교	윤지영	이석현	이재승	이훈구	(전경업)	정초윤	진기효	최정규	허승배	
김서울	김원일	김필선	노근어	배상순	배현수	손정수	심영환	오승보	윤진미	이석환	이재영	이훈우	전서진	정현석	전성욱	최정윤	허용	
김서현	김유자	김학경	도정만	박시현	배은정	손정옥	심화화	오승철	윤창득	이선경A	이재일A	이희정	전성화	정현희A	진승이	최정은	허재욱	
김석우	김은경A	김하나	도희철	배연수A	배정민	손지희	심은하	오승호	윤창민	이선경B	이재일B	이희진	전소연	정현희B	전영순	최정하	허정숙	
김성수	김은경B	김태현	라정현	박영민	배정호	손진주	안갑식	오대경	윤재민	이상희	이재호	이건호	전경서	정혜경	주진영	최정희	함진훈	
김성순	김은영A	김해자	류보라	박영규	배정환	손철완	안경섭	오영화	윤형준	이선중	이정민	임계원	전영선	정혜미	차경연	최지안	허정희	
김성연	김은영B	김행선	류상영	박영대	배진석	손혜림	안광재	오용진	윤혜원	이선지향	이정석	임남민	전영선	정혜숙	차보영	최지옥	허종	
김성준	김은진	김태현	류수민	박영민	배진한	손희경	안도겸	오윤신	윤준배	이성훈	이정선	임미경	전은경	정혜원	차상윤	최지현	허지연	
김성호	김인곤	김현곤	류소하	박영서	배찬군	송경민	안도균	오진선	윤희	이선희	이정윤	임병순	전종민	정희숙	차선근	최창욱	허지원	
김성홍	김인국	김현수	류장근	박영수	배태선	송경섭	안상일	오현철	이거연	이성욱	이정은	임병운	전주영	정희영	차영희	최재원	허지윤	
김성환	김인철	김현수	류정현	박영자	배태연	송광민	안수호	육옥호	이강수	이성현	이정미	임병욱	전진서	정민서	차영희	최재원	허지윤	
김세동	김인하	김현아	류현욱	박영식	백경기	송기준	안세은	육천수	이경민	이세경	이정자A	임삼미	전현진	재하림	차주엽	최해은	허진호	
김세연	김지이	김현자	명재민	박영우	백경연	송다인	안세정	왕지훈	이경분	이세연	이정자B	임선주	전현호	재환승	채서연	최해진	허철행	
김세진	(연세고)	김현자	문경준	박영자	백남식	송도하	안세준	왕지훈	이경분	이세연	이정자B	임선주	전현호	재환승	채서연	최해진	허철행	
김세현	김재선	김현정B	문명득	박영희	백명기	송명규	안소영	우남일	이경우	이승일	이조아	임성현	전홍철	조경부	채성현	최효상	형서윤	
김세환	김재수	김현주A	문성우	박옥봉	백상철	송민희	안수연	우단해	이경민	이수만	이종근	임사연	전환식	조기열	채승식	최훈	홍계복	
김소라	김재학	김현주B	문성훈	박유빈	백서연	송선욱	안수호	우덕기	이경훈	이수진	이종기	임용섭	전하수	조기하	채승훈	추영호	홍문기	
김소영	김정경	김현지	문인정	박유진	백승현	송성민	안순정	우삼식	이권조	이수하	이종범	임우정	정권환	조기현	채지윤	추승재	홍석준	
김수강	김정민	김현철	문용남	박윤하	백영연	송시훈	안순주	우진아	이규태	이숙애	이종현	임이연	정규진	조동환	채한규	추영신	홍성표	
김수미	김정선	김형준	문윤주	박윤주	백운정	송영화	안순현	우진아	이근후	이숙원	이종철	임인순	정다연	조명순	채홍준	추환수	홍성화	
김수연A	김정숙	김형중	문일곤	박은경	백인호	송용출	안영복	원세연	이금구	이순욱	이주현	임재경	정동수	조명일	천미림	표지은	홍승환	
김수연B	김정순	김형훈	문주란	박은혜	백지현	송윤	안예준	원용운	이기서	이슬기A	이주호	임재규	정동수	조문경	천영란	피지환	홍윤경	
김수자A	김정연	김형진	문지현	백해진	송은수	송은수	안익진	원은주	이기혁	이슬기B	이종욱	임재규	정미애	조미정	천영란	허규빈	홍은교	
김수자B	김정옥A	김혜경	문해진	박재형	변용석	송인숙	안재호	원종현	이기훈	이슬기	이지성	임재민	정미자A	조석영	최경석	하은형	홍은희	
김수정	김정옥B	김혜연	민병식	박정빈	변은모	송정화	안정하	위민주	이날/	이승수	이지수	임재욱	정미자B	조성경	최기훈	허정자	홍재곤A	
김수지	김정은	김호경	민성용	박정수	빈채원	송주복	안홍기	위정환	김용희	이승연	이지아	임재학	정미희	조소은	최기훈	허미옥	홍재곤B	
김수현	김정중	김호근	민승자	박정심	빈지은	송현서	안홍숙	위정환	이남우	이정범	이지영A	임정민	정방민	조수빈	최태용	허성정	홍재우	
김수환	김정철	김호수	박경아	박정민	사우원	송호천	안홍기	위정환	이남주	이승현	이지영B	임정화	정봉근	조수아	최명림	허우용	홍준수	
김숙희	김정희	김호영	박경준	박정현	서개성	송희동	양가윤	유경자	이누리	이시현	이지용	임정희	정상규	조수용	최명진	허윤지	황규애	
김순애	김제이	김호철A	박경진	박정혜	서광원	신대현	양정용	유광준	이대우	이만욱	이지원	임재미	정석현	조수현	최민희	허주영	황덕우	
김솔아	김종남	김호철B	박경태	박정호	서동우	신동선	양대석	유기홍	이도현	이양혜	이지현A	임태민	정선욱	조순욱	최미선	하현일	황도원	
김승길	김종민	김희중	박관형	박정희	서동원	신동지	양도혁	유민철	이동수A	이연숙	이지현B	임혜숙	정수현	조시현	최병용	하회근	황명식	
김승범	김종오	김하춘	박관홍	박종선	서만교	신동진	양무인	유성상	이동수B	이연주A	이지혜	임효선	정신영	조양래	최병익	한근수	황명진	
김신실	김종현	김한승	박광우	박종안	서병문	신명철	양미숙	유성종	이동훈	이연주B	이진성	임훈	정아윤	조양현	최병익	한경구	황별비	
김아람	김준구	김한식	박근홍	박종철	서성환	신미아	양방인	유소영	이동훈A	이영숙A	이진우	장계훈	정양희	조영국	최병조	한계수	황상문	
김아리	김준형	김효동	박기식	박주석	서수연	신민경	양병권	유소화	이동훈B	이영숙B	이찬우	장기영	정연권	조영근	최병현	한기명	황상문	
김아영	김준휘	김효정	박득춘	박주혜	서여록	신민수	양세라	유승애	이득구	이영애	이재만	장미경A	정영환A	조영선	최봄	한기서	황서경	
김안소	김지수	김효진	박명수	박준환	서영준	신상윤	양수진	유승환	이루미	이영은	이홍호	장미경B	정영환B	조영수	최상숙	한남익	황선녀	
김양욱	김지연A	김훈기	박명욱	박준희	서영택	신상태	양순화	유신혜	이영미	이영주	이태경A	장미애	정예원	조예나	최상은	한남익	황선영	
김연서	김지연B	김희수	박명재	박지성	서옥희	신소애	양연주	유영미	이명자	이영직	이태경B	장미현	정유은	조용덕	최상일	한단은	황선우	
김연주	김지오	김희희	박미경	박지연	서정하	신승경	양우홍	유재걸	이명재	이영진	이태경C	장민서	정윤정	조우진	최석훈	한동민	황연재	
김연희	김지용	김희용	박미선	박지원	서정아	신승원	양우경	유정호	이명희	이영현	이필레	장상민	정은경	조옥연	최성효	한미라	황옥성	
김영관	김지원	나금주	박미진	박진미	서종문	신연숙	양일용	유종연	이무현	이완우	아하늘	장석홍	정은서	조원빈	최순덕	한미숙	황옥진	
김영근	김지원A	나민석	박미정	박진솔	서지향	신영교	양우란	유지웅	이미애	이용래	이한기	장수철	정은영	조은	최소환	황의진	(서광고)	황의진
김영민	김지원B	나영옥	박민건	박진희	서창용A	신영환	양해원	유춘곤	이민욱A	이원분	이한길	장신미	정은채	조종오	최신식	한미숙	황인성	황재현
김영복	김지원C	나용	박민선	박찬승	서창용B	신요한	양희수	유현수A	이민욱B	이원성	이해성	장영	정익근	조하연	최원실	한미현	황재현	황재현
김영국	김진권	나인애	박민수	박창식	서현수	신용태	양희주	유현수B	이민하	이원희	이현경	장영숙	정익성	조현근	최영근	한병호	황제웅	황제웅
김영진	김진량	나정순	박병렬	박창오	서현숙	신원식	양두영	유화중	이범식	이원복	이현승	장영희	정인석	조현욱A	최영근A	한보화	황주철	황주철
김영현	김진성	나희경	박봉서	박철범	서호현	신우경	양은식	윤경희	이범규	이윤경	이현아	장우영	정일랑	조현욱B	최영민A	한상봉	황준식	황준식
김영희	김진웅	남막래	박상미	박지훈	석정금	신우정	양태철	윤규식	이범규	이윤서	이현우	장윤지	정재룡	조현욱	최영민B	한소원	황진한	황진한
김예숙	김창대	남상욱	박상필	박태준	선경호	신우정	양호룡	윤근영	이범호	이윤성	이현행	장인기	정재욱	조현정	최영민	한영주	황현주	황현주
김예은	김창환	남소희	박상훈	박태형	선현희	신은자	여재욱	윤대승	이보남	이윤식	이형	장지은	정재원	조홍찬	최영주	한현영	JINYINZI	JINYINZI

일시후원

학교

태광고등학교 함안고등학교 합천가야초등학교

개인/기업

박지연 황미선 최인영 외 경북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World Art Day

세계 예술의 날(4월 15일)

심수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기자단

윈손잡이, 채식주의자, 화가, 공학자, 천문학자, 난독증... 서로 동떨어진 것 같지만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 인간'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양한 수식어를 포용하는 그의 존재는 예술이 가진 힘을 잘 보여줍니다. 다빈치의 생일이기도 한 4월 15일은 세계 예술의 날입니다. 올해는 이 기념일을 제정한 국제조형예술협회(IAA)가 설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인만큼 더욱 의미가 남다르죠. IAA는 유네스코 협력 단체로, 1948년 제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예술가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장애를 찾아내 자유를 보장하고 작업 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예술의 날은 예술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감상하고 기념하며 문화활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날입니다. 2021년 유네스코가 내놓은 『위기에 직면한 문화』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현대의 예술가들은 경제적 불안정, 비즈니스 노하우, 다양성과 평등, 지적재산권 등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 지원 프로그램 개선, 교육 및 자원 공유 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예술가들의 역할과 창의성을 존중하려면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술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만끽하는 것이 예술가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일 것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 한가운데에서, 행복을 주는 예술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림 그려주는 AI 앱인 'dream by wombo'가 그린 'World Art Day'

4월의 세계 기념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4월 6일 발전과 평화를 위한 세계 스포츠의 날
 4월 15일 세계 예술의 날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4월 30일 세계 재즈의 날

5월의 세계 기념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어린이날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부처님 오신날	
28	29	30	31			

5월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
 5월 16일 세계 빛의 날, 세계 평화 공존의 날
 5월 21일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
 5월 22일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
 5월 20-26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세상 모든
어린이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교육만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글을 알면 질병을 이길 수 있고
기술을 배우면 일이 생기고
책을 읽으면 꿈이 생기니까요.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안내

전화 1800-9971
홈페이지 peace.unesco.or.kr
일시후원 무통장입금(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민은행 375301-04-106542

QR코드로 간편하게 후원하세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프리카·아시아 브릿지 프로그램”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역학습센터를 지어줍니다.



선생님을 파견하여 글을 읽고 쓰고
기술을 익혀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육에 필요한 책과
학습기자재를 지원합니다.

미래 교육 공존의 과학 문화의 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9971

<http://peace.unesco.or.kr>